Revista Iberoamericana 25.1 (2014): 127-152.

잉카 가르실라소, 르네상스, 메스티소 텍스트*

우 석 균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우석균(2014), 잉카 가르실라소, 르네상스, 메스티소 텍스트.

초 록 잉카 가르실라소의『잉카 왕실사』도 시대에 따라 평가가 달라졌다. 하지만 출간 때부터 적어도 1960년대 이전까지 안데스 식민지시대 관련 기록 중에서 항상 중요한, 또 때로는 가장 귀중한 텍스트로 꼽혔다. 이는 잉카 가르실라소의 지적 능력과 글쓰기 수준이 당대인 르네상스의 기대지평선을 충족시켰고, 그 덕분에 안데스 관련 지식의 장(場)에서 일찌감치 중요한 위치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70년을 전후로는 비판적 시각이 주류를 이루었다. 르네상스의 이상에 사로잡혀 잉카 시대를 지나치게 미화했다는 비판은 그 이전에도 이따금씩 제기되었지만, 그를 아예 르네상스에 포섭된 식민화된 주체로 보는 시각까지 대두되었다. 가령, 르네상스의 이면에서 식민주의와의 공모를 읽어낸 월터 D. 미뇰로의 관점은 인문주의자였던 잉카 가르실라소의 평가절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후『잉카 왕실사』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반론들도 제기되었다.『잉카 왕실사』를 코러스적 글쓰기로, 나아가 메스티소 텍스트로 규정한 호세 안또니오 마소띠의 시도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 글은 잉카 가르실라소의 전기나 시대적 맥락, 텍스트 분석 등을 통해 각각의 관점을 뒷받침하는 논지를 추적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일종의 대위법적 방법론에 입각해 미뇰로와 마소띠의 관점을 간단하게나마 비교하였다.

핵심어 잉카 가르실라소, 잉카 왕실사, 르네상스, 월터 D. 미뇰로, 호세 안또니오 마소띠, 메스티소 텍스트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2-B00015).

I. 들어가면서

에스파냐인 정복자와 잉카 공주 사이에 태어난 잉카 가르실라소 데 라 베가(Inca Garcilaso de la Vega, 1539~1616)의 『잉카 왕실사 *Comentarios reales de los Incas*』 1부와 2부는 각각 1609년과 1617년 간행되었다.1) 정복 시대와 그 직후를 주로 다룬 2부보다 잉카 시대를 다룬 1부가 특히 식민지시대 문헌 중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왔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저자가 원주민과 페루에 대한 정보를 쉽게, 또 직접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1539년 꾸스꼬에서 태어나 1560년까지 거주했고, 잉카 왕족이었던 모계 친척 어른들의 잉카 시대와 정복 시대에 대한 체험담을 직접 들을 수 있었고, 원주민어인 께추아어가 모국어였기 때문이다. 또한 에스파냐식 교육을 정식으로 받아서 글쓰기 면에서도 손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에스파냐인들의 기록까지도 수월하게 참조할 수 있었다는 점 역시 『잉카 왕실사』의 가치를 높였다.

그렇지만 『잉카 왕실사』가 현대 독자의 기대지평선을 충족시킨다고 보기는 힘들다. 무엇보다도 상투어나 비슷한 구조의 이야기들이 지나치게 반복된다. 더구나 이러한 반복이 대체로 잉카 시대와 군주들에 대한 과도한 미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면서 역사서로서의 사실성에 대한 의구심까지 준다. 그런데 『잉카 왕실사』의 이런 결점은 잉카 가르실라소의 문재(文才) 부족 때문이 아니다. 상당 부분 그가 살았던 르네상스의 흔적, 즉 그 시대 특유의 이상주의적 세계관이 잉카 시대와 군주들에 대한 미화로 귀결되었다. 시대와의 유착은 확실히 당대에는 유리하게 작용했고, 그 후에도 『잉카 왕실사』의 위상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1970년을 전후해서는 이러한 유착 관계가 오히려 잉카 가르실라소의 평가절하 요인으로 작용했다. 식민화된 주체, 식민체제의 조력자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진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존재한다.

국내에서 잉카 가르실라소 연구가 그다지 많이 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1) 2부는 잉카 가르실라소 사후에 출판되었고, 저자의 원래 의도와는 달리 '페루 일반사(Historia general del Perú)'라는 제목이 붙었다.

이 글은 우선 이러한 해석의 차이를 전기적 요인들을 곁들여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II장에서는 잉카 가르실라소의 글쓰기 특징을, III장에서는 이런 특징을 낳은 시대적 맥락을, IV장에서는 잉카 가르실라소가 식민화된 주체라는 비판의 논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이에 대한 반론을 검토할 것이다.

Ⅱ. 『잉카 왕실사』의 과도한 반복과 미화

잉카 가르실라소의 『잉카 왕실사』가 식민시대 초기의 다른 문헌들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데에는 유려한 글솜씨와 지루함을 덜어주는 텍스트 구성도 한몫했다. 비슷한 시기에 각각 『새로운 연대기와 선정 *El primer nueva corónica y buen gobierno*』(1615; 1616)과 『페루 왕국의 고대에 대한 보고서 *Relación de antegüedades deste reino del Perú*』(1613?)를 쓴 펠리뻬 와만 뽀마 데 아얄라(Felipe Guamán Poma de Ayala)[2]나 산타 끄루스 빠차꾸띠(Juan de Santa Cruz Pachacuti Yamqui Salcamaygua) 같은 원주민 작가보다 글솜씨가 더 나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했다. 독학자였던 이들과는 달리 잉카 가르실라소는 꾸스꼬 시절 정식 교육을 받았기에 에스파냐어 구사 능력 자체에서 차이가 컸다. 또한 잉카 가르실라소는 당대에 안데스 관련 기록들을 남긴 에스파냐인들에 비해서도 대체로 더 정제된 문체의 소유자였다. 적어도 1580년대부터 문필가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글쓰기에 익숙했던 반면, 1세대 정복자들은 오히려 무식한 이들이 많았다. 게다가 당시 에스파냐인의 기록들

2) 이 글의 인명과 지명은 통상적인 외래어 표기법에 준하지만 께추아어의 흔적을 남기고자 ‘우아만’ 대신 ‘와만’이라는 표기를 고수한다. 현재 원주민들은 꾸스꼬(Cusco) 대신 꼬스꼬(Q’osqo)로 적는 등 에스파냐어 표기법에 입각한 표준어 정책에 도전하고 있다. 그들의 표기를 다 수용하는 것은 지나치겠지만, 식민지시대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Guamán Poma’이나 ‘Huamán Poma’ 대신 ‘Waman Puma’를 고수하는 이들이 있고, 현재 안데스인들은 자신의 상징으로 삼은 깃발을 에스파냐어식 표기법인 ‘huiphala’ 대신 ‘wiphala’로 표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상징적인 차원에서 ‘와만’이라는 표기를 택했다.

중에는 식민체제 정당화를 위한 관료적 책무나 개인 혹은 특정 집단의 공적을 인정받으려는 현실적 이해 때문에 쓴 글도 많은데, 이들은 '사실(史實)'이나 '진실' 전달에 치중해서 문체가 무미건조하거나 조악한 경우가 많았다.

텍스트 구성에서도 잉카 가르실라소는 독서의 재미를 고려했다. 『잉카 왕실사』의 집필 의도는 1부는 잉카 군주들의 치적, 2부는 정복자들의 무훈을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예찬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 중심축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다채로운 이야기를 집어넣어 독서가 너무 싫증나지 않도록"(Vega 1995, 91) 했다. 이 이야기들 중에는 우선 잉카의 문물과 풍습에 대한 이야기들이 대거 눈에 띈다. 이 이야기들은 페루의 지리, 자연, 산물 등을 소위 '콜럼버스의 교환(Columbian exchange)' 관점에서 쓴 내용, 즉 정복 후 구세계와 신세계의 만남이 물질적인 분야에서 야기한 변화상까지 포괄하고 있다. 『잉카 왕실사』가 민족지학지로서 대단히 흥미로운 텍스트로 꼽히는 이유이다. 문학적으로도 탁월한 부분들이 있다. 콜럼버스 이전에 신대륙이 발견되었다는 주장을 담은 장이나(1부 1권 3장) 로빈슨 크루소 이야기를 연상시키는 조난 일화(1부 1권 8장) 등 야사 성격의 장들에서 잉카 가르실라소는 이야기꾼으로서의 미덕을 보여주고 있으며, 잉카의 저항 왕조였던 빌까밤바(Vilcabamba) 왕조의 마지막 군주 뚜빡 아마루(Túpac Amaru)의 처형을 다루는 장면에서는(2부 8권 19장) 극적인 긴장감을 고조시키면서도 독자의 심금을 울리는 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2010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가 연대기 저자로서가 아니라 문인으로서 잉카 가르실라소의 미덕을 예찬한 것도(Chang-Rodríguez 2010, 196) 이런 맥락에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독자의 입장에서 『잉카 왕실사』를 흥미진진하게 읽는 것은 쉽지 않다. 가장 큰 걸림돌은 상투어와 동일 구조 이야기들의 반복이다. 이는 독서의 흥미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역사서로서의 『잉카 왕실사』의 신빙성마저 의심하게 만든다. 특히 1부의 중심축인 잉카 군주들의 업적을 다루는 부분의 천편일률성이 두드러진다. 애당초 잉카 군주들을 태양의 자손으로 신격화시키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극도의 예찬은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모든 군

주에게 다 '너그러움(generosidad)', '덕(virtud)', '가련한 이들을 사랑하는 자(amador de pobres)' 등의 상투어가 따라붙고 있다.

동일 구조 이야기의 반복은 잉카 군주들의 주요 업적으로 상세하게 거론되고 있는 영토 팽창 과정에 대한 서술에서 두드러진다. 거의 모든 정복전쟁의 준비, 전개, 결말이 너무나 뻔하다. 질서정연한 전쟁 준비와 출정, 본격적인 전쟁 이전의 항복 권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개시되는 최소한의 전쟁과 승리, 복속된 부족에 대한 관용과 시혜 등이 이야기 구조의 핵심이다.[3] 정복 대상 부족들은 보통 어진 군주로서의 잉카 군주들의 명성에 순순히 항복하기 일쑤이고, 전쟁이 일어나면 거의 예외 없이 잉카가 승리하고, 새로 복속된 부족들은 잉카의 덕에 감화되어 이내 충성스러운 백성으로 변하는 이야기 구조가 십여 차례 반복된다는 것은 독서의 긴장감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요소이다. 가령, 3대 군주였다는 잉카 요께 유빵끼(Inca Lloque Yupanqui)의 전공을 다룬 부분을 예로 들어보자.

잉카 요께 유빵끼는 선왕들의 가르침대로 적들과의 전투를 최대한 피했다. 마치 포위한 것이 아니라 포위당하기라도 한 것처럼 야만인들이 안기는 모욕을 감내하면서, 휘하에게 가능하면 무력을 쓰지 말고 포위망만 강화하도록 유념시켰다. 하지만 아야우이리 족은 잉카 군주의 온건한 태도에 오히려 용기백배해서는 그를 겁쟁이로 간주하면서 항복하는 대신 나날이 더 완강하게 버티고 전투에서는 더욱 더 거칠어지더니 마침내는 잉카의 본영에까지 진입하기에 이르렀다. 아야우이리 족에게 이 전투들의 결과는 늘 나빴다.

> 잉카 요께 유빵끼는 이 일이 다른 부족들에게 나쁜 본보기가 되지 않도록, 또 무기를 드는 무례한 사태를 벌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그들의 완강함을 응징하기로 했다. 그는 지원군을 요청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세를 과시하기 위함이었다. [...]
> 그들은[아야우이리 족] 혹시라도 운이 자기들 편인지 시험해보고자 했다. 하

3) 안또니오 로렌떼 메디나(Antonio Lorente Medina)는 이 과정을 6단계로(Mazzotti 2010, 143), 노성일은 9단계로(Song No 1999, 27-39) 분류해 설명하고 있다.

루는 아주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잉카 군은 아주 용맹하게 저지했고, 양측 모두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아야우이리 족은 이 전투에서 아주 큰 손실을 입은 채 후퇴했고 다시는 섣불리 싸우러 나오지 못했다. 잉카 군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그들의 목을 벨 수 있었지만, 이를 원치 않았다. 대신 포위로 압박하면서 항복을 유도했다.
그 사이 잉카 요께 유빵끼가 요청한 지원군이 도착했다. 이로써 적들은 낙담하여 항복하는 것이 낫겠다고 결정했다. 잉카 군주는 그들을 응징하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였다. 그리고는 태양의 아들에게 대항한 일을 준엄하게 꾸짖은 후, 휘하에게 그들의 완강한 저항을 염두에 두지 말고 잘 대우하라고 명했다.(Vega 1995, 111)

포위전이 오래 지속되고,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고, 원군을 요청했다는 것을 보면 분명 잉카가 고전한 정복전쟁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카 가르실라소는 잉카 요께 유빵끼가 방어적 전쟁을 지시해서 승리가 지체되고 사상자도 많이 났다고 하며, 지원군도 필요해서가 아니라 세를 과시하기 위해 요청했을 뿐이라고 적고 있다. 전쟁을 그토록 관용적으로 수행했다는 서술도, 또 이런 식의 동일한 역사가 계속 되풀이되는 것도『잉카 왕실사』의 역사로서의 신빙성을 가로막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잉카 가르실라소가 1부와 2부의 집필 의도와 다소 동떨어지는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를 집어넣으면서까지 독서의 재미를 고려한 흔적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상투어와 상투적 이야기 구조는 저자의 글쓰기 능력 결여 때문이 아니라 의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상투어와 상투적 이야기 구조의 무한반복을 통해 잉카 군주들의 미덕을 독자에게 세뇌시킬 작정인 듯 보인다. 때문에 향수어린 시선으로 잉카 시대를 서술했다는 평가가『잉카 왕실사』를 따라다니는 것이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며, 실제로 역사 기록으로서의 공신력을 의심받는 일도 왕왕 있었다. 가령, 메넨데스 이 뻴라요(Marcelino Menéndez y Pelayo) 같은 비평가는『잉카 왕실사』는 역사 텍스트가 아니라 유토피아적 소설이라고 단언했고, 히스패닉주의자이자 페루 근대 역사학의 초석을 닦았으며『잉카 왕실사』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열혈 옹호자였던 리바 아구에로(José de la Riva Agüero)도 잉카 시대를 유토피아적으로 다루다보니 역

사서로서 취약한 면이 없지 않다고 인정했다(Mora, Serés y Serna 2010, 11-12). 잉카 군주들의 업적 부분의 신빙성 문제는 뼈아픈 일이 아닐 수밖에 없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잉카 왕실사』1부의 중심축이 잉카 군주들의 업적인데다가, 정복시대를 다룬 2부는 동일한 시기를 다룬 에스파냐인들의 기록도 많기 때문에 애초부터 별로 주목도 받지 못했고 반향도 적었기에 1부에 대한 평가가 곧『잉카 왕실사』전체에 대한 평가나 진배없었기 때문이다.

III. 르네상스적 인간 잉카 가르실라소

현대 독자의 기대지평선에 위배되는 이러한 과도한 반복과 미화는 미리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시대의 산물, 구체적으로는 르네상스의 영향이었다. 잉카 가르실라소는 이미 꾸스꼬 시절에 일정 부분 르네상스의 세례를 받았다. 꾸스꼬 시절에 그가 받은 교육이 바로 인문주의 교육이었다. 그리고 익히 알려진 것처럼 에스파냐 시절의 잉카 가르실라소는 르네상스에 완전히 심취했다. 이탈리아어를 배운 것도 르네상스 인문주의에 경도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문필가로서 처음 명성을 얻게 된 것도 당대 인문주의자들이 높이 평가한 레온 에브레오(León Hebreo, 1460?～1521)의『사랑의 대화 *Diáologos de amor*』[4]를 이탈리아어에서 에스파냐어로 번역하면서였다. 또한 코르도바 인근의 작은 마을 몬띠야(Montilla)에 거주할 때부터, 특히 1592년 코르도바에 정착하면서부터 이 도시와 세비야의 인문주의자들과 열성적인 지적 교류를 했다. 잉카 가르실라소의 사후에 장서를 정리할 때도, 에스파냐 저자들의 책보다 그리스와 로마 저자들의 책과 이탈리아 르네상스 때 쓰인 책들이 훨씬 더 비중이 컸다(Miró Quesada 1994, 293-298).[5]

4) 이 책은 1502년 탈고되어 1535년 출판되었다. 저자 레온 에브레오는 성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유태계였다. 그의 집안은 원래 포르투갈에 살았지만 1483년 부친이 역모 혐의를 받으면서 에스파냐로 도주했다. 그리고 1492년 에스파냐의 유태인 추방령 때문에 또다시 이탈리아로 건너가 정착했다.

5) 이 때문에 에스파냐 르네상스보다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잉카 가르실라소에게 더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Castro-Klarén 2011, 214).

잉카 가르실라소의 문장(紋章)에 들어있는 ‘칼과 펜으로(Con la espada y con la pluma)’라는 문구는 그가 추구한 인간형을 짐작하게 해준다. 그 문구는 친척 할아버지뻘 되는 가르실라소 데 라 베가[6]의「전원시 III Egloga III」에 들어있는 “때로는 칼을 잡고, 때로는 펜을 들고(tomando ora la espada, ora la pluma)”라는 구절에서 비롯되었다. 에스파냐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시인인 가르실라소 데 라 베가가 칼과 펜을 언급한 이유는 그가 시인이자 군인이었기 때문이었다. 그것도 여러 차례 혁혁한 무공을 세웠으며, 1536년 전투에서는 선두에 서서 용맹하게 싸우다가 부상을 입고 사망한 이력의 소유자였다. 잉카 가르실라소도 1568년 그라나다에서 발생한 모리스꼬 반란 때 토벌군으로 참여했고, 1570년에는 300명을 지휘하는 대위(capitán)로 임명된 전력도 있지만 그렇다고 가르실라소 데 라 베가에 비길 만한 군 경력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카 가르실라소가 칼과 펜 모두를 문장에 집어넣은 이유는 르네상스적 인간임을 과시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르네상스가 추구한 인간형은 보편적 인간(l’uomo universale)으로 국내에는 보통 전인(全人)으로 번역되어 왔다. ‘보편적’에 함축된 의미가 ‘다재다능함’, 즉 여러 방면에서의 완벽한 지식과 능력이기 때문이다(야콥 부르크하르트 1999, 183-186).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가 전인인 것이다. 그래서 잉카 가르실라소가 ‘칼과 펜’을 문장으로 삼았다는 것은 이를테면 스스로 문무를 겸비한 전인임을 과시한 것이다.[7]

---

6) 주지하다시피 ‘잉카 가르실라소’라는 이름이 바로 이 에스파냐 시인에서 비롯된 것이다. 본명인 고메스 수아레스 데 피게로아(Gómez Suárez de Figueroa)를 사용하지 않게 된 이유는 단순히 에스파냐에 동명의 친척 어른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하고, 페루에서 곤살로 삐사로(Gonzalo Pizarro)가 엔꼬멘데로(encomendero)들의 입장을 대변해 에스파냐 왕실에 대한 반란(1544～1548)을 일으켰을 때 동명의 당숙이 참여했기 때문에 본명을 고수하기 꺼림칙했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Mazzotti 2005, 5). 개명 이유를 정확히 알기는 힘들지만 잉카 가르실라소의 부친이 곤살로 피사로에 협조했다는 의심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라 두 번째 견해는 상당히 설득력 있다.

7) 물론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맥락에서 보면 잉카 가르실라소의 시도는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르네상스의 궁정문화에서 기사도는 이미 철지난 것으로 간주되어, 자수성가한 모험가와 상인이나 서민층 출신의 인문주의자들이 기사들의 지위를 대거 잠식했다(아르놀트 하우저 1999, 67-69). 또한 기사도에 대한 패러디도 이탈리아 콰트로첸토(1400년대) 시대에는 이미 공공연한 것이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에

『잉카 왕실사』에서 전인에 대한 잉카 가르실라소의 갈망이 투영된 인물들이 바로 잉카 군주들이다. 『잉카 왕실사』의 부제에서는 물론 본문에서도 여러 차례 "평화 시에도 전쟁 시에도(en paz y en guerra)"라는 구절이 잉카 군주들의 묘사에 따라다니고 있는데, 이는 펜과 칼이 각각 평화와 전쟁으로 치환된 것이다. 이로써 잉카 군주들이야말로 내치와 외치에 두루 통달한 진정한 전인임을 주장한 것이다. 너그러움, 덕, 사랑 같은 최고의 수식어들이 상투적으로 따라붙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상투적인 이야기 구조 문제도 르네상스의 맥락에서 충분히 이해 가능하다. 레온 에브레오의 『사랑의 대화』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 책의 핵심 사상은 하느님이 창조한 세상은 만물이 조화, 통합, 균형, 질서를 이루는 세계라는 것이다. 바로 르네상스의 신플라톤주의와 일맥상통하는 사상이다 (Hernández 1991, 123-134; Miró Quesada 1994, 129-146). 잉카 가르실라소가 『잉카 왕실사』를 통해 구현한 잉카 시대가 바로 이러한 모습을 띠고 있고, 늘 같은 방식으로 되풀이되는 정복은 그 사례 중 하나이다. 하느님이 만든 세상에서 조화와 질서를 깨트리는 사건은 존재할 수 없었다. 전쟁은 돌발적으로 일어나거나 파괴적 양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질서정연한 준비와 신의 섭리 실현이라는 뚜렷한 목표 속에서만 가능한 일이었다. 설사 그 섭리에서 벗어난 아야우이리 족과의 치열한 전투 같은 일이 벌어진다 해도 결말은 늘 어진 군주와 충성스러운 백성이 하나가 되는 상태, 즉 조화와 통일성의 세계가 복원되어야 했다.

그밖에도 『잉카 왕실사』에서 르네상스의 흔적은 무수히 많다. 지면 관계상 한 가지만 더 들자면 꾸스꼬에 대한 묘사가 그렇다. 『잉카 왕실사』에서 꾸스꼬는 도덕적이고 유능한 왕실이 있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제천의식들이 거행되고, 문물이 고루 발전한 도시이고, 수준 높은 도시계획과 행정체계를 갖추고

서 기사도는 철지난 중세의 이상에 불과했던 것이다. 에스파냐 경우에도 이를 비판한 『돈키호테』(1605)가 있다. 그러나 에스파냐 르네상스는 기원과 전개가 이탈리아보다 시기적으로 늦었던 데다가, 아메리카 정복 과정에서 무훈이 중요시된 풍토가 여전히 남아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칼과 펜의 동시 예찬이 이해 못할 일만은 아니다.

있으며, 외래 부족과 물자들이 모이는 국제적인 도시이다. 같은 신분의 두 사람이 길에서 마주쳤을 때, 꾸스꼬로 가는 사람이 이 도시에서 나오는 사람을 윗사람처럼 떠받들었다는 구절은(Vega 1995, 188) 꾸스꼬에 대한 잉카 가르실라소의 자부심이 어느 정도였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까스뜨로-끌라렌은 꾸스꼬의 묘사에서 르네상스의 흔적을 발견한다. 그녀가 문제 삼는 부분은 꾸스꼬를 아난 꾸스꼬(위 꾸스꼬)와 우린 꾸스꼬(아래 꾸스꼬)로 이분하고, 창건자인 망꼬 까빡과 마마 오끄요가 각각 교화시킨 사람들을 아난 꾸스꼬와 우린 꾸스꼬에 나누어 거주하게 함으로써 두 창건자를 영원히 기억하게 했다는 대목이다. 아난과 우린의 구분은 르네상스와는 무관한 잉카 고유의 행정체계이지만 이에 두 창건자의 기억이 투영되어 있다는 서술이 도시계획에 사회적 질서를 반영하는 르네상스의 도시계획과 부합된다는 것이다(Castro-Klarén 2011, 218).

잉카 가르실라소의 르네상스에 대한 경도는 그와『잉카 왕실사』의 위상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인문주의자들이 당대 에스파냐 지성계의 주역이었기 때문이다. 잉카 가르실라소가 교류하던 인문주의자 그룹이 코르도바 지성계에서 굳건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코르도바 인문주의자들의 뒤에는 당대에 알깔라 대학과 에스파냐 지성계에서 영향력이 컸으며 왕실의 신임을 받았던 인문주의자 암브로시오 데 모랄레스(Ambrosio de Morales)가 있었기 때문이다.[8] 하지만 이 점은 또한 잉카 가르실라소의 부정적 평가의 근거로도 활용

---

8) 잉카 가르실라소의 시대를 르네상스 시대로만 규정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다. 잉카 가르실라소는 세르반테스와 완벽하게 동시대 인물이었다. 세르반테스는 잉카 가르실라소보다 8년 늦게 태어났지만, 사망은 같은 날 혹은 하루 차이였다. 또『돈키호테』 1, 2부는 1605년과 1615년 간행되었고,『잉카 왕실사』1, 2부는 각각 1609년과 1617년에 빛을 보았다. 게다가 잉카 가르실라소 시대의 코르도바에는 바로크의 대표 문인인 루이스 데 공고라(Luis de Góngora, 1561～1627)도 명성을 얻고 있었다. 따라서 잉카 가르실라소의 시대를 르네상스에서 바로크로의 전환기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잉카 가르실라소 자신은 바로크와는 무관했고, 적어도 제도권 지성계는 인문주의자들이 지배하고 있었다. 에스파냐 인문주의자들과 잉카 가르실라소의 관계, 또 당대 지성계에서 인문주의자들의 위치는 까르멘 데 모라(Carmen de Mora)의 연구(Mazotti 2010, 103-117)를 참조하라.

되기도 했다.

Ⅳ. 식민화된 주체의 면모

와만 뽀마의『새로운 연대기와 선정』이 1908년 덴마크에서 발견되고, 영인본이 1936년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인 연구의 계기가 된 일은 장차『잉카 왕실사』의 정전으로서의 지위를 위협하게 된다. 그리고 1960년대에 이르면『새로운 연대기와 선정』이『잉카 왕실사』보다 높은 평가를 받기 시작한다. 무엇보다도『새로운 연대기와 선정』은 398개의 삽화 때문에 크게 주목을 받았다. 대단히 파괴적인 정복과 문자의 부재로 대거 유실된 잉카 역사의 복원에 새로운 빛을 주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잉카 가르실라소가 메스티소인 반면 와만 뽀마는 인디오였다는 점도『잉카 왕실사』보다『새로운 연대기와 선정』을 높이 평가하게 된 분위기 조성에 영향을 끼쳤다. 와만 뽀마의 텍스트가 소위 '깊은 페루(Perú profundo)'를 더 잘 대변하리라는 기대지평선이 조성된 것이다. 마소띠(José Antonio Mazzotti)에 따르면 이 기대지평선은 나탕 바흐텔(Nathan Wachtel)의 1973년 연구를 필두로 파트리시아 시드(Patricia Seed)와 자크 라파예(Jacques Lafaye)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연구에서 되풀이되어 왔다(Mazzotti 1996, 28). 하지만 1970년 옥스포드 대학에서「펠리뻬 와만 뽀마 데 아얄라에 나타난 역사 개념 The Idea of History in Felipe Guaman Poma de Ayala」으로 박사학위를 딴 후안 M. 오시오 역시 논문 주제를 선정할 때『새로운 연대기와 선정』이 원주민의 증언 기록이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Ossio 1973, 155-156), 무게 중심의 이동은 1960년대에 이미 가시화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잉카 가르실라소의 가치절하가 비단 그가 메스티소였기 때문만은 아니다. 비슷한 시기에, 역시 메스티소였던 뚜빡 아마루 2세는 오히려 집중조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이례적으로 반제국주의적, 민중주의적 성격의 군부 쿠데타로 1968년 집권한 벨라스꼬(Juan Velasco Alvarado) 정권

이 뚜빡 아마루 2세를 혁명의 상징으로 삼으면서이다(Klarén 2004, 415). 그가 잉카의 저항 왕조 최후의 군주 뚜빡 아마루 1세의 피를 이어받은 인물이라는 상징성도 있지만, 식민체제에 맞서 봉기해 인디오공화국 건국을 천명하기도 했다는 점이 벨라스꼬 정권의 반제국주의적, 민중주의적 노선에 부합했다고 볼 수 있다. 즉, 1970년을 전후해 인디오/메스티소의 이분법적 평가구도도 작동했지만, 반식민적 · 민중적 주체인가 아닌가가 또 다른 가치 기준으로 작용한 것이다.

그런데 잉카 가르실라소는 원주민도 아니지만 반식민적 · 민중적 주체로도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식민체제 하에서 상당한 지위를 누렸기 때문이다. 대략 똘레도 부왕(1569~1581) 부임 이전, 즉 식민체제의 기틀이 잡히기 전까지 잉카 왕족들은 어느 정도 대접을 받았고, 잉카 가르실라소 같은 메스티소 1세대와 이들의 아버지 세대에 해당하는 1세대 정복자들의 관계도 반드시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잉카 가르실라소의 경우는 1560년 페루를 떠나기 전까지 메스티소와 잉카 왕족을 통틀어서도 상당히 괜찮은 위치에 있었다. 가령, 『잉카 왕실사』 1부에서 잉카 가르실라소는 프란시스꼬 삐사로 사후 정복자들의 구심점이 된 곤살로 삐사로가 "나를 친자식처럼 대해주었다"(Vega 1995, 441)라고 적고 있다. 또 잉카 가르실라소는 부친의 공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해 평생 유감의 뜻을 표했지만, 부친은 곤살로 삐사로 반란에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554년에는 에스파냐 왕실로부터 꾸스꼬의 사법과 치안을 담당하는 수장(Justicia mayor) 겸 꼬레히도르(corregidor)로 임명되었다. 또한, 권력자의 집에 사병 성격의 식객이 대거 신세를 지는 것이 당시 풍습이었는데, 잉카 가르실라소 부친의 집에 드나들던 이들은 그 수가 물경 150~200명에 이르러 구설수에 오를 지경이었다고 하니(Miró Quesada 1994, 87) 사실 부친의 만년은 오히려 영화로운 것이었다. 비록, 부친이 에스파냐 여성과 다시 결혼을 하면서 잉카 가르실라소와 모친은 각각 사생아와 첩으로 전락하고 말았지만, 그래도 부친은 그를 총애하여 계속 자기 집에 기거하게 하면서 서기 일도 시키고 코카 밭도 증여했다. 그리고 사후에 잉카 가르실라

소가 에스파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재산을 남겼는데, 라껠 창-로드리게스의 추산으로는 오늘날 가치로 환산해서 25만 달러에 달할 정도였다(Chang-Rodríguez 2010, 197). 에스파냐 생활도 경제적으로 궁핍하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다.『잉카 왕실사』2부에서 "고독과 가난으로 점철된 벽촌에 정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Vega 2009, 481), 1592년 후안 페르난데스 프랑꼬(Juan Fernández Franco)라는 인물에게 쓴 편지에서 자신을 "보잘 것 없고 체불되기 일쑤인 보수 때문에 서생이 된 군인"(재인용, Asensio 1955)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몬띠야의 숙부 부부가 차례로 사망하면서 유산을 물려받아 어느 정도의 지대 소득이 있었고, 덕분에 코르도바에 정착해서 큰 어려움 없이 지적 교류와 집필에 전념할 수 있을 정도는 되었다.

이런 전기적 사실만으로도 잉카 가르실라소를 식민체제의 피해자로만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그를 식민체제의 적극적 협력자로 해석할 만한 여지도 있다. 월터 D. 미뇰로(Walter D. Mignolo)의『르네상스의 이면: 글쓰기 능력, 영토성, 식민화』는 잉카 가르실라소를 지나가면서 언급하는 정도이지만 그를 식민화된 주체로 볼 수 있을 강력한 논거를 제공하고 있다. 미뇰로는 서구의 기존 시각처럼 르네상스를 인류 문명의 총아로 보지 않는다. 르네상스 때 이루어진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물의 부활과 혁신은 그에게는 식민주의적 팽창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Mignolo 2003, vii).

미뇰로의 다각도의 분석 중에서 본고에서 주목하는 점은 역사 서술과 관련된 고찰이다. 미뇰로에 따르면 서구에서 역사 서술은 알파벳의 탄생과 함께 그리스 시대에 시작되었고, 로마 시대의 키케로 등에 의해서 역사는 오직 알파벳을 이용한 글쓰기를 통해서만 서술될 수 있다는 관념이 발생했으며, 이러한 관념이 르네상스 시대 역사관의 표준이 되었다(Mignolo 2003, 134-136). 에스파냐에서는 문법학자로 유명한 안또니오 데 네브리하(Antonio de Nebrija)가 이런 관념을 되살려 강력히 주장했고(Mignolo 2003, 1장),『인디아스의 풍속사와 자연사 *Historia natural y moral de las Indias*』(1590) 저자인 예수회 신부 호세 데 아꼬스따(José de Acosta)가 안데스 원주민들의 지적 능력을 인정하면

서도 문자가 없었다는 점을 커다란 결함으로 지적했다(Mignolo 2003, 133). 이로써 메소아메리카의 코덱스나 잉카의 매듭문자 끼뿌(quipu) 혹은 낭송 같은 문자 외 수단에 입각한 역사 전승은 제대로 된 역사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었다. 미뇰로는 문자가 없는 사람들은 곧 역사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논리는 결국 원주민이 열등하다는 결론으로 귀결되었다고 지적한다(Mignolo 2003, 127).[9] 이는 결국 정복의 정당화로, 또 정복의 가장 큰 대의명분인 기독교 전파(그리고 이를 통한 교화)의 정당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미뇰로는 훗날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배 논리였던 문명화 사명, 20세기의 발전주의, 20세기부터 오늘에 이르는 시장민주주의 논리의 기원에 기독교복음화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미뇰로 2010, 40-41) 르네상스의 이면이 곧 서구 지배담론의 기원임을 부각시킨다.

에스파냐의 아메리카 지배는 미뇰로의 고찰에 비추어 생각해볼 점이 많다. 주지하다시피 에스파냐는 아메리카 '발견'으로 적어도 17세기 초까지 기독교 복음화 작업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 이 시기가 신교의 종교개혁 시기와 겹치고, 그 국면에서 가톨릭 세력이 단행한 대항종교개혁의 주요 추진축도 에스파냐였다. 이 과정에서 에스파냐는 대단히 폭력적이었던 아메리카 정복과 식민 통치를 미화할 필요를 느꼈다. 그래서 에스파냐는 이 사업들이 순수한 종교적 동기에서 시작되고 조화롭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재천명했고, 까르멘 데 모라에 따르면 바로 모랄레스 같은 제도권 인문주의자들이야말로 에스파냐의 기독교적 사명을 로마 제국의 기독교 수용에 비유하였다(Mazzotti 2010, 105-110). 이를테면 에스파냐의 국가적 사명을 팍스 로마나의 재현, 특히 기독교

9) 『잉카 왕실사』에서 아꼬스따 신부는 가장 많이 인용되는 사람 중 하나이다. 그의 책이 아메리카 자연에 대해 권위를 인정받았고, 정복과 기독교 문명 이식에 대한 합리화로 일관하기 일쑤인 다른 에스파냐인들의 기록과 달리 원주민 역사를 나름대로는 객관적으로 쓰려고 노력했고, 특히 교육 받은 메스티소의 지적 능력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꼬스따 신부 역시 에스파냐 제국주의의 무의식적 공모자였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물론 반론도 존재한다. 가령, 페르민 델 피노-디아스를 참조하라(Mazzotti 2010, 51-77). 아꼬스따에 대한 국내연구로는 박병규(2013)를 참조하기 바란다.

정신에 입각한 팍스 로마나로 확대시킨 것이다. 이로써 에스파냐는 선봉에 서서 서구의 이해, 즉 기독교 문명권의 이해를 대변하는 지위를 스스로에게 부여한 셈이다. 네브리하 같은 언어학자, 아꼬스따 같은 신부, 모랄레스 같은 역사가, 식민지 관련 기록을 남긴 무수한 역사가내지 연대기 작가, 왕실에 식민지 사정을 알린 보고서 집필자들이 모두 다 잔혹한 정복자나 수탈자였던 것도 아니고, 이들이 모두 인문주의자들도 아니었다. 하지만 르네상스(특히 르네상스의 언어와 역사 개념)가 식민주의적 팽창과 무의식적인, 그러나 긴밀한 공모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잉카 가르실라소를 에스파냐 정복에 협조한 식민화된 주체로 보는 입장에서 가장 명백한 전거는 그가『잉카 왕실사』2부를 통해 정복자들을 예찬했다는 점일 것이다. 잉카 왕족의 후예이기도 하지만 정복자의 아들이기도 했던 잉카 가르실라소에게 정복자 예찬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이는 또다시 르네상스적 인간관에 의거한 것이기도 하다. 혈통보다 개인의 능력을 중요시하기 시작한 시대가 바로 르네상스였기 때문이다(아르놀트 하우저 1999, 95).『잉카 왕실사』2부에는 "사람들이 알 만한 부모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각자의 덕과 공적(功績)으로 평가되어야 한다"(Vega 2008, 225)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는 대체로 고위 귀족 출신이 아니었던 정복자들이 오직 개개인의 능력과 희생으로 아메리카 정복이라는 '위업'을 달성한 점을 높이 산 것이다. 그러나 잉카 가르실라소가 개인의 능력에 대한 단순한 예찬을 분명 넘어서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그는 2부의 집필 의도 중 하나가 "신과 국왕과 자신들을 위해 용기와 군사 지식으로 그 풍요로운 제국을 얻은 영웅적인 에스파냐인들의 위대함을 예찬하기"(Vega 2008, 23) 위함이라고 적고 있다. 정복자들의 '위업'을 신과 에스파냐 국왕의 영광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펠리뻬 2세 때의 대항종교개혁을 통해 신의 계획과 국가의 사명과 정복 사업을 동일시하려는 노력을 경주한 모랄레스 같은 제도권 지식인들의 시도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다.

기독교 전파에 대한 맹목적인 예찬이 단순히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식민

주의 담론에 의거하고 있다는 점도 잉카 가르실라소가 식민화된 주체라는 의구심을 배가시킨다. 잉카 가르실라소는 안데스의 역사를 잉카 이전 시대, 잉카 시대, 정복 이후 시대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잉카 이전 시대는 심지어 인신공양과 식인풍습까지 존재한 야만인의 시대였다고 말한다(1부 1권 11장). 루이스 미요네스(Luis Millones)는 이를 안데스가 메소아메리카 지역보다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대목으로, 나아가 잉카의 줄기찬 정복전쟁을 기독교 전파를 위한 일종의 성전으로 포장하려는 시도로 해석한다(Mazzotti 2010, 65-68). 이를테면 잉카 가르실라소가 로마 제국과 잉카를 같은 반열에 놓으려고 한 것은 잉카에 대한 예찬을 넘어, 잉카가 로마 제국처럼 기독교 수용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함이었다고 해석할 여지가 발생하는 것이다.

잉카 가르실라소가 잉카 시대에 이미 기독교 수용 준비가 되어 있었음을 주장하기 위해 잉카 종교는 물론 안데스 종교까지 왜곡하는 점은 미요네스의 해석이 타당하다는 근거이다. 잉카 가르실라소는 우선 잉카인들의 우상숭배가 태양 숭배에 국한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Vega 1995, 75). 달이나 번개 등 자연이나 자연현상을 숭배한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안데스 전역에서 숭배 대상이던 일종의 상급신 위라꼬차(wiracocha), 대지모신 빠차마마(pachamama), 일종의 산신령인 아뿌(apu), 모든 종류의 신성을 통칭하는 와까(huaca)에 대해서도 잉카 가르실라소는 가급적이면 신성을 부여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다만 빠차마마와 유사한 신인 빠차까막(pachacámac)을 태양신보다 우위에 두는데 이 역시 식민주의에 물든 결과로 볼 수 있다. '잉카인들은 진정한 신인 우리 주님을 인식했다'라는 제목의 1부 2권 2장에서 잉카 가르실라소는 잉카인들이 내면적으로는 빠차까막을 태양보다 더 상급신, 즉 일종의 절대자로 떠받들었으며, 빠차까막-태양신-잉카 군주의 종교체계를 잉카 종교의 특징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을 연상시키는 주장이고 이를 위해 위라꼬차, 아뿌, 와까 등의 신성을 일부러 격하시켰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또 1부 2권 3장에서는 꾸스꼬에 십자가가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와

이나 까빡은 태양신보다 “더 우월하고 권능 있는”(Vega 1995, 583) 신이 있을지 모른다는 견해를 발설하기에 이른다. 와이나 까빡이 정복 직전의 군주였다는 점은 잉카의 창건자 망꼬 까빡과 더불어 시작된 기독교 수용 준비의 사명, 즉 하느님이 예정한 사명이 완수되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1부의 「독자에게 바치는 서문」에서 안데스에 기독교가 전파됨으로써 안데스가 우상숭배의 심연에서 구원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아가 “기독교 공화국(república cristiana)”10)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기독교 전파를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한 것이(Vega 1995, 4) 잉카의 멸망과 에스파냐 식민체제의 등장은 하느님의 섭리였다는 잉카 가르실라소의 시각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로렌떼 메디나에 따르면 잉카 가르실라소의 이런 논지는 16세기 연대기 상당수에서 되풀이되는 만상 섭리주의(providencialismo)에서 비롯된 것이다(Mazzitti 2010, 141). 즉 정복을 신의 섭리로 간주한 식민주의 담론이 『잉카 왕실사』에 스며들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잉카 가르실라소 역시 르네상스의 수많은 인문주의자들처럼 부지불식중에 식민주의적 팽창에 협력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V. 메스티소 텍스트로서의 『잉카 왕실사』

잉카 가르실라소가 식민화된 주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그는 인디오가 아니라 메스티소였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즉, 잉카 가르실라소가 패자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의무는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카 가르실라소는 ‘잉카’를 이름에 사용했고, 심지어 때로는 자신을 ‘인디오’로 규정하기도 한다. 물론 자신을 기독교도나 메스티소로도 규정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를 기회주의로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식민체제가 굳어져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명확하게 갈린 시대에, 또 지식의 장(場)에서 원주민의 역사가 부정된 르네상스 시대에 자신의 원주민 기원을 당당하게 내세웠다는

10) 여기서 ‘공화국’은 현대적 의미의 정치제제를 갖춘 국가를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고, 플라톤과 관계가 있다.

점은 그가 완전히 식민치제에 포섭된 인물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요구한다.

호세 안또니오 마소띠의 1996년 저서『잉카 가르실라소의 메스티소 코러스: 안데스적 반향 *Coros mestizos del Inca Garcilaso: Resonancias andinas*』(1996)은 1970년을 전후해 정립된 반 잉카 가르실라소 기류를 논박한 대표적인 연구이다. 마소띠는 법, 직업 선택, 상속, 관직, 결혼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당시 메스티소들에게 가해진 제약을 상기시킴으로써(Mazzotti 1996, 23) 잉카 가르실라소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에 대한 과도한 해석을 차단한다. 또 잉카 가르실라소가 르네상스적 인물이라는 점에 의거한 에스파냐화된(hispanizado) 잉카 가르실라소/원주민 사유의 대표자 와만 뽀마라는 비판적 이분법을 배격하고(Mazzotti 1996, 28), 오히려 잉카 가르실라소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잉카 왕실사』에 끼친 유럽 저서들의 영향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있다고 비판했다(Mazzotti 1996, 102). 가령,『잉카 왕실사』를 정전의 지위로 격상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이스빠니스따 리바 아구에로의「잉카 가르실라소 예찬 *Elogio del Inca Garcilaso*」(1916)이 고전주의, 라틴주의, 지중해 문화 등의 연결고리로 이 책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 것을 비판한다(Mazzotti 1996, 330-331). 즉, 잉카 가르실라소가 아니라 그의 연구자들이 식민화된 주체라고 비판한 것이다.[11]

마소띠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잉카 왕실사』이전에 텍스트화된 꾸스꼬의 구전 전통을 주목한다.『잉카 군주들의 가계, 통치, 정복에 대한 보고서 *Relación de la descendencia, gobierno y conquista de los Incas*』(1542),『잉카 군주들에 대한 모든 이야기 *Suma y narración de los Incas*』(1548-1556),『페루 정복 이야기 *Relación de la conquista del Perú*』(1570)들이 그것이다.[12] 첫 번째 텍스트는 그때까지 끼뿌[13] 를 해독할 줄 알았던 원주민 노인 4인의 구술 기록

11) 마소띠는 리바 아구에로와 정반대로『잉카 왕실사』의 잉카적 특징이나 원주민적 특징만을 예찬한 루이스 E. 발카르셀(Luis E. Valcárcel)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Mazzotti 1996, 331).

12) 연도는 출판 연도가 아니라 구술, 채록 연도임. '페루 정복 보고서' 대신 '페루 정복 이야기'라는 제목을 택한 이유는 우석균(2012, 461-463)을 참조하라.

이고, 두 번째 텍스트는 꾹시리마이 오끄요(Cuxirimay Ocllo)라는 잉카 공주와 결혼한 후안 데 베딴소스(Juan Díez de Betanzos y Araos)가 처가 식구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쓴 책이며, 세 번째 텍스트는 빌까밤바 왕조의 3대 군주 띠뚜 꾸시 유빵끼가 구술한 원고이다. 잉카 가르실라소가 이 텍스트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 그는 자기 삶의 경험, 모계 친척 어른들의 이야기, 집필 중 꾸스꼬의 지인들과 주고받은 편지 등을 토대로『잉카 왕실사』를 썼다고 말할 뿐이다(1부 1권 19장). 마소띠도 이 텍스트들이『잉카 왕실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다만 상기 언급한 세 텍스트는 물론 잉카 가르실라소의 경험과 자료들 모두 두 세계의 만남의 결과라는 점을 보여주고자 했고, 이를 통해 잉카 가르실라소에게만 집중된 비판이 부당한 것임을 주장하고 싶었을 뿐이다.

구전 전통을 주목했다고 해서 마소띠가 문자/구술의 이분법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와만 뽀마나 산타 끄루스 빠차꾸띠 같은 원주민 연대기 작가들 역시 잉카 가르실라소처럼 유럽 역사서술 전통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으며(Mazzotti 1996, 58-59), 그보다 훨씬 전인 1550년대 중반의 잉카 구왕족의 언어 표현 역시 일정부분 서구화되어 있었다고 지적한다(Mazzotti 1996, 110). 즉 안데스에 이식된 문자 전통은 물론이고 구전 전통 역시 식민체제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냉철하게 인식한 것이다. 그렇지만 마소띠는 원주민들의 구술이 중요한 사료였던 식민지시대 글쓰기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완전히 배제되었을 가능성 역시 비현실적이라고 본다. 여기서 마소띠는 바흐친의 다성성의 개념을 빌린다.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가 지배자들의 독백이 독점하는 관계가 아님을 텍스트 분석과 대조를 통해 입증하고자 했고, 이를 통해 식민지시대 텍스트들을 '코러스적 글쓰기(escritura coral)'로 정의하고, "서사적 목소리들이 증식되고 포개지는"(Mazzotti 1996, 324) 것을 이러한 글쓰기의 특징으로 보았다. 이러한 논지에 입각해 마소띠는『잉카 왕실사』가 코

13) 잉카의 매듭문자로 잉카 시대에는 역사 전승에도 이용되었음.

러스적 글쓰기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이를 메스티소 텍스트로 규정한다. 메스티소가 쓴 텍스트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승자와 패자와 그 사이에 낀 메스티소의 목소리가 서로 대화하는 문화횡단(transculturación) 텍스트라는 의미에서이다(Mazzotti 1996, 323-325). 『잉카 왕실사』가 식민주의의 팽창에 협력한 르네상스 텍스트라는 비판에 대한 마소띠의 반박이자 결론이다.

다만 마소띠는 유보적인 언급도 잊지 않는다. 당시 꾸스꼬 사회가 바흐친의 대화주의 이론을 전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수많은 목소리가 자유롭게 분출하고 대화할 수 있을 상황이 아니었고(Mazzotti 1996, 326), 따라서 안또니오 꼬르네호 뽈라르(Antonio Cornejo Polar)의 지적처럼 『잉카 왕실사』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조화의 담론"(Mazzotti 1996, 39)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언뜻 보면 잉카 가르실라소의 『잉카 왕실사』가 '불가능한 이상을 꿈꾸었다'는 일반화된 평가에 되돌아온 셈이다. 하지만 마소띠의 출발점은 잉카 가르실라소와 다른 원주민 연대기 저자들과의 형평성 문제에 있었다. 즉, 잉카 가르실라소의 재조명을 통해 원주민 텍스트들은 가능한 이상을 꿈꾸었고 식민주의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겠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와만 뽀마와 산타 끄루스 빠차꾸띠 역시 식민주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가령, 이들도 잉카 가르실라소처럼 기독교 수용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와만 뽀마나 산타 끄루스 빠차꾸띠의 텍스트를 들여다보아도 안데스인들이 노아의 자손이라거나 에스파냐 정복 훨씬 이전에 예수의 제자 도마가 안데스에서 포교 활동을 벌였다는 대목을 볼 수 있다. 이는 안데스인 역시 하느님의 피조물이고 기독교도이기 때문에 에스파냐인과 동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 요구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잉카 왕실사』의 기본입장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심지어 이 텍스트들보다 40년 전후 앞선 띠뚜 꾸시 유빵끼의 『페루 정복 이야기』에서 이미 동일한 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 띠뚜 꾸시 유빵끼는 자신이 세례를 받았으며 교회와 십자가 건립에도 협조했다는 점을 내세워 펠리뻬 2세에게 자신이 항복할 경우에 온당한 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Titu Cusi Yupanqui 2006, 156, 158).

이는 이미 띠뚜 꾸시 유빵끼 시대 때부터 식민체제를 무너뜨릴 생각보다 그 체제 안에서 생존을 모색하고 있었다는 반증이다. 그만큼 식민체제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굳건하게 뿌리를 내린 것이다. 사실, 꼭두각시 왕으로 옹립되었다가 도주하여 1536년 빌까밤바 왕조를 세우고 대규모 봉기를 일으킨 망꼬 까빡의 무장투쟁은 2차 봉기에 실패한 1539년에 이미 추동력을 상실했다(Hemming 2004, 300). 또한 식민지배를 뒷받침하는 담론도 완성되었다. 마르가리따 사모라는 그 시초를 후안 데 마띠엔소의 『페루 통치 *Gobierno del Perú*』(1567)로 본다. 이 글은 잉카 군주의 전제정치/에스파냐 군주의 선정이라는 이분법을 확립하고, 공동의 이익(common good)을 위해서라면 잉카 지배층의 정치적 권위를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Chang-Rodríguez 2010, 122). 그리고 똘레도 부왕이 잉카 시대 피지배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잉카 군주들의 폭정(tiranía)을 조사한 일이나 이런 기조에 부응한 역사서인 사르미엔또 데 감보아의『잉카 역사』는 띠뚜 꾸시 유빵끼의『페루 정복 이야기』와 동시대의 산물이었다. 띠뚜 꾸시 유빵끼는 정복자들이 악마의 꼬드김에 넘어가 금은보화에 눈이 멀었고, 심지어 부친인 망꼬 잉카의 부인까지 탐하였다고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Titu Cusi Yupanqui 2006, 36: 38: 40). 자신은 기독교 포교에 협조한 반면, 정복자들은 기독교도의 의무를 저버렸다는 이러한 대비는 식민주의와 반식민주의의 주요 전쟁터가 기독교 수용 여부에서 진정한 기독교도 논쟁으로 옮아갔음을 의미한다.

잉카 가르실라소가 자신을 줄곧 기독교도로 지칭하고, 나아가 하느님을 위해, 또 지상에서 하느님의 대리인인 교황에게 아메리카 포교를 위임받은 에스파냐 국왕을 위해 충성을 받쳤다는 주장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정복 이전에 절대자에 대한 성찰과 십자가가 이미 존재했다는 식의『잉카 왕실사』의 언술 역시 마찬가지이다. 단순히 식민주의와의 공모의 결과물로만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심지어 마르가리따 사모라는『잉카 왕실사』2부가 정복자들을 미화시켰다는 비판까지 반박한다. 2부 8권에서 에스파냐 식민지배자들의 정치권력 남용, 뚜빡 아마루 1세 처형, 메스티소 박해 등에서 잉카

가르실라소의 분명한 반식민주의 노선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Chang-Rodríguez 2010, 119). 식민주의에 협력하는 듯한 흔적이 농후한 가운데에서도 메스티소나 원주민들의 권익 옹호를 위한 목소리들이 새어나오는『잉카 왕실사』의 특징에서 이를 메스티소 텍스트로 규정한 마소띠의 시도가 전혀 설득력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VI. 결 론

지금까지 잉카 가르실라소를 식민화된 주체로 보는 관점과 이에 대한 반론을 살펴보았지만 명약관화한 결론을 내리기는 사실 쉽지 않다. 무엇보다도 4세기의 세월을 뛰어넘어 당대의 시대적 맥락과 잉카 가르실라소 개인의 고뇌를 꿰뚫어보는 작업 자체가 한계가 있는 일일 수밖에 없다. 또한 잉카 가르실라소 스스로도 기독교도, 인디오, 메스티소, 에스파냐 제국의 백성, 페루인 등 다양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음을 과시하니, 그의 진정한 발화위치를 포착하는 일은 더욱더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 잉카 가르실라소를 식민화된 주체로, 나아가 식민체제 완성에 협력한 공모자로 단정 짓기에는 나름대로 고단했던 그의 인생 역정이나 잉카 왕족의 후예라는 자부심이 가득한『잉카 왕실사』에 대한 모독인 듯하다. 그렇다고 잉카 가르실라소의 반식민주의적 면모만 부각시킨다면 그 역시 지나친 미화일 것이다. 잉카중심주의자, 꾸스꼬중심주의자 나아가 르네상스적 인간이요 지식인이었던 잉카 가르실라소가 당대 밑바닥 인생을 살았던 민중들과 이해관계가 같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그가 1부에서는 잉카인들을 2부에서는 정복자들을 예찬함으로써 불가능한 조화를 꿈꾼 일을 과도하게 비판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2011년 보스턴에서 열린 제5회 해외페루연구자국제회의(Congreso Internacional de Peruanistas en el Extranjero)에서 루이스 미요네스는 "우리는[페루인들] 모두 삐사로이고, 동시에 모두 아따왈빠이다"라는 말로 기조연설을 마무리한 바 있다. 정복자이자 피정복자, 승자이자 패자, 지배자이자 피지배자, 백인이자 원

주민일 수밖에 없는 페루인들의 숙명을 요약한 말이다. 그런데 그 학회에서 백인과 메스티소는 다수였지만, 원주민 연구자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우리 모두 삐사로이고 아따왈빠인데도 여전히 평등하지 않은 사회상의 한 단면이다. 그렇다면 잉카 가르실라소의 시대에서 4세기가 지나도록 아무도 풀지 못한 숙제를 그에게만 짊어질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그래서 본 연구자가 보기에 잉카 가르실라소에게 보아야 할 미덕은 이 숙명을 인식한 혜안이다. 그는『잉카 왕실사』1부에서 잉카 창건 신화를 다루고 난 뒤 "우리 건물의 주춧돌을 놓았다"(Vega 1995, 48)라고 적고 있다. 그가 생각하는 '우리'의 범주는 2부 서문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그는 "페루 제국(Imperio del Perú)"의 "인디오, 메스티소, 끄리오요에게"에게 책을 바친다고 하면서 자신을 이들의 "형제이자 동포이자 동향 사람(hermano, compatriota y paisano)"으로 규정했다. '페루 제국'이라는 표현을 통해 페루와 타자의 경계를 설정하고 있고, 페루 사회의 구성원에서 반도인(peninsular)을 배제하고 있으며, 경계 내부의 여러 인종간 차이를 무화시키려 한 것이다. 영토적 귀속감과 경계 내부의 사람들과의 유대의식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잉카 가르실라소가 일종의 원민족주의(proto-nationalism) 의식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유럽과 아메리카의 만남이 대단히 폭력적이고 위계화된 사회질서를 낳았다지만, 어쨌든 그 만남을 통해 페루라는 새로운 사회가 탄생했음을 천명한 것이다. 그에게 '최초의 페루인'이라는 평가가 따라다니는 이유가 그 때문이고, 그가 인종적으로 메스티소여서가 아니라 인종 간 차이에 구애받지 않는 메스티소 의식을 선취하고 있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박병규(2013),「16세기 아메리카 원주민 기원 담론의 형성」, 스페인어문학, 69권, pp. 226-245.

아르놀트 하우저(1999),『문학과 예술의 사회사』제2권, 백낙청 · 반성완 옮김, 창작과 비평사.

야콥 부르크하르트(1999),『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문화』, 안인희 옮김, 푸른숲.

우석균(2012),「식민체제와 안데스의 원주민 지배층: 잉카 군주의 외교게임과 반식민주의 담론」, 스페인어문학 63호, pp. 439-465.

월터 E. 미뇰로(2010),『라틴아메리카, 만들어진 대륙: 식민적 상처와 탈식민적 전환』, 김은중 옮김, 그린비.

Asensio, Eugenio(1955), "Dos cartas desconocidas del Inca Garcilaso de la Vega," http://codex.colmex.mx:8991/exlibris/aleph/a18_1/apache_media/EIPFPDIMH5PP94HQ7NAFEKM3QBIM6E.pdf.

Castro-Klarén, Sara(2011), *The Narrow Pass of Our Nerves. Writing Coloniality and Postcolonial Theory*, Madrid: Iberoamericana Vervuert.

Chang-Rodríguez, Raquel(ed.)(2010), *Entre la espada y la pluma. El Inca Garcilaso de la Vega y sus Comentarios reales*, Lima: Fondo Editorial de la 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del Perú.

Hemming, John(2004), *La conquista de los incas*, trad. Stella Mastrangelo, 1ª reimpresión, México D.F.: Fondo de Cultura Económica.

Hernández, Max(1991), *Memoria del bien perdido: conflicto, identidad y nostalgia en el Inca Garcilaso de la Vega*, Lima: Instituto de Estudios Peruanos/Biblioteca Peruana de Psicoanálisis.

Klarén, Peter F.(2004), *Nación y sociedad en la historia del Perú*, trad. Javier Flores, Lima: Instituto de Estudios Peruanos.

Mazzotti, José Antonio(1996), *Coros mestizos del Inca Garcilaso: Resonancias andinas*, Lima: Fondo de Cultura Económica.

_____(2005), "Garcilaso en el Inca Garcilaso: los alcances de un nombre," http://www.biblioteca.org.ar/libros/134547.pdf.

Mazzotti, José Antonio(ed.)(2010), *Renacimiento mestizo: Los 400 años de los Comentarios reales*, Madrid: Iberoamericana Vervuert.

Mignolo, Walter D.(1982), "Cartas, crónicas y relaciones del descubrimiento y la conquista," Luis Iñigo Madrigal(coordinador), *Historia de la literatura hispanoamericano: época colonial*, Madrid: Cátedra, pp. 57-116.

_____(2003), *The Darker Side of the Renaissance: Literacy, Territoriality, and Colonization*, 2nd ed.,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Miró Qeusada, Aurelio(1994), *El Inca Garcilaso*, Lima: Fondo Editorial de la 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del Perú.
Mora, Carmen de, Guillermo Serés y Mercedes Serna(eds.)(2010), *Humanismo, mestizaje y escritura en los Comentarios reales*, Madrid: Iberoamericana Vervuert.
Ossio, Juan M.(1973), “Guaman Poma: Nueva corónica o carta al rey. Un intento de aproximación a las categorías del pensamiento del mundo andino,” Juan M. Ossio. A.(ed.), *Ideología mesiánica del mundo andino*, 2ª ed., Lima: Edición de Ignacio Prado Pastor, pp. 155-213.
Song, No(1999), “La oralidad y la violencia de la escritura en los *Comentarios reales* del Inca Garcilaso,” *Revista de Crítica Literaria Latinoamericana*, No. 49, pp. 27-39.
Titu Cusi Yupanqui(2006), *History of How the Spaniards Arrived in Peru*, Dual Language ed., trans. Catherine Julien, Indianapolis and Cambridge: Hackett Publishing Company.
Vega, Inca Garcilaso de la(1995), *Comentarios reales de los Incas*, reimpresión, (edición, índice analítico y glosario de Carlos Araníbar), México D.F.: Fondo de Cultura Económica.
_____(2008), *Comentarios reales*, ed. Enrique Pupo-Walker, 5a ed., Madrid: Cátedra.
_____(2009), *Historia general del Perú*, Lima: SCG.

우 석 균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wsk65@snu.ac.kr

논문투고일: 2014년 3월 26일
심사완료일: 2014년 4월 7일
게재확정일: 2014년 4월 14일

Inca Garcilaso, Renaissance and Mestizo Text

Suk-Kyun Woo
Institute of Latin Americ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Woo, Suk-Kyun(2014), Inca Garcilaso, Renaissance and Mestizo Text.

Abstract The estimation of the Royal Commentaries of the Incas has also changed according to the age. However, since its publication, at least until the age of 60 the previous century, this work has always been considered as a important (sometimes the most important) one between the colonial texts. It is because, besides the rich information of the text, Inca Garcilaso de la Vega's intellectual capacity and the writing level satisfied the horizon of expectations of his time, the Renaissance, so that from the origin this text occupied an important place in the field of knowledge production in respect to the Andes. But around 1970, some perspectives that underestimate its value has been prevailing. Although the excessive idealization of the Inca period according to the ideal of the Renaissance had been repeatedly pointed out, Inca Garcilaso even was regarded as a colonized subject. But in recent years, there are revaluation attempts beyond this perspective. This article traces these two different approaches.

Key words Inca Garcilaso, Royal Commentaries of the Incas, Renaissance, Walter D. Mignolo, José Antonio Mazzotti, Mestizo text